



단지 내 산책로(왼쪽)와 조형물.



그림같은 나무 아래 사슴가족... 바쁜 일상서 '일시정지'

유치원, 초·중·고 등 도보권 최고 29층, 16개동, 총 1304가구 조망·채광 등 고려 남향위주 배치
 국토부 시공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옥정중앙호수공원 잇는 공원 조성
 천보산·선돌근린공원 등 인접 중앙 수변공간에 수생 비오톱 GX룸·실내수영장 등 갖춰



아파트의 미학(美學) 제일풍경채옥정

최근 찾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제일풍경채 옥정'.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 2번 출구에서 99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솔빛유치원과 옥빛초·중·고등학교, 연푸른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공원과 하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 주민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주옥정지구 A19-2블록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6개동, 총 130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64~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전용면적 16㎡부터 42㎡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상가 총 32실도 함께 들어섰다.

아파트 정문에는 '풍경채'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지상에는 보행자를 고려해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를 조성,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에서 실적 1위를 수상했다"면서 "단지 바로 옆에는 옥정중앙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이 위치하며 천보산, 선돌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제일풍경채 옥정'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톱을 조성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잔디광장에는 나무와 사슴을 조형화 한 '산들바람'이 설치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담은 파스텔톤의 나무 조형물은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단지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와 정원 등도 조성돼 있어 입주민이 테이블과 벤치가 앉아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자녀들을 위한 플튼바이시스 어학원과 키즈카페가 들어섰다.

단지 내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정글 숲 속을 모티브로 만든 유아전용 놀이터가 설치됐다.

숲 속 커다란 그루터기, 경찰서, 오두막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글·사진=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조경 모습.
 ②, ③ 테마놀이터와 ④ 산책로.